

信 관련 說話에 나타난 믿음의 意味

高南植*

目次

- I. 서론
- II. 여동빈의 빛, 십년 머슴 이야기와 믿음
- III. 최풍헌 이야기와 믿음
- IV. 결론

I. 서론

믿음은 종교 수행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요목이며 신앙의 근본이 되는 요소이다. 그런데 믿음은 정량화 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그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기란 어려우며 각 종교마다 믿음의 본질적 정서는 같겠지만 그 깊이와 차원은 다르다 할 수 있다. 대순사상에 있어 상제(上帝)는 강세(降世)이전부터 신계(神界)의 절대적 존재로 위치해 온 신성(神聖)한 위상을 가진 믿음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상제는 신계의 신성 불 보살들이 하소연하여 온 신적 존재들의 경배와 믿음의 자리에 위치하였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을 구원해 줄 존재로서 인세(人世)에 강세하였다.

인세에서의 천지공사(天地公事: 1901-1909)를 통해 상제는 천지인(天地人) 삼계(三界)에 대한 권능(權能)과 예지(叡智)를 나타냈으며, 각종의 치병(治病)을 이루어 민중들의 신앙의 대상으로 존송(尊崇)되었다. 민중들에게 믿음의 정서를 주는 인물로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열어준 것이다.

* 대전대학교 대순종학과 교수

이 글은 대순사상에서의 믿음에 관한 내용을 상제가 인용한 설화 문학에 주목해 살펴 본 것이다. 문학 작품의 종교에서의 위치에 대해서는 많은 언급이 있어 왔는데 정진홍이 「문학이 지닌 이야기, 문학이라는 가능성을 창조하는 창조성에의 자기 봉헌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구원의 이야기라고 불러 크게 잘못될 수 있을 것인가? 구원이 종교라고 일컬어지는 담론안에서만 정당성을 지니는 이른바 종교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현실에 대한 담론의 하나라면 그 용어의 용례를 다른 맥락에서 발언하는 것은 전혀 시민적 자유에 속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정진홍,1991:55)라고 한 내용은 종교의 일단에 문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단명히 보여주고 있다.

종교와 문학의 친연성은 원시종합예술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져 왔으며 고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문학은 종교에 예속되었고, 현대로 내려올수록 종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영역을 넓히면서 오히려 그를 예속화하려는 대담성까지도 보여 주었다.(박찬두,1991:148-149) 종교가 일구어 낸 형이상학의 가치체계를 언어의 옷을 입혀 표현한 것이 경전으로 경전 없는 종교를 생각할 수 없다. 경전은 문학의 언어 질서를 십분 활용하고 있다. 문학이 추구하는 가치세계는 알게 모르게 종교적 가치세계를 차용해 오고 있다.(최순열,1991:94) 이 글은 종교적 경전이며 문학적 텍스트인 『전경(典經)』에 등장하는 상제가 인용한 믿음과 관련된 설화를 중심으로 그 속에 비유적으로 담겨 있는 믿음의 본질을 살펴 본 후, 상제의 실제적 행적과 말씀 안에서 상제의 권능을 통해 민중들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이것이 믿음의 형성에 한 기저를 이루고 있음을 고찰한 것이다.

Ⅱ. 여동빈의 빛, 십년머슴 이야기와 믿음

믿음에 대한 중요성은 모든 종교가 예외없이 같지만 특징적으로 믿음의 본질은 종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점을 상제가 인용한 여동빈(呂洞賓) 설화속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나의 일은 여동빈(呂洞賓)의 일과 같으니라. 그가 인간의 인연을 찾아서 장생술을 전하려고 빗장사로 변장하고 거리에서 이 빛으로 머리를 빗으

면 흰 머리가 검어지고 굽은 허리가 곧아지고 노구가 청춘이 되나니 이 빛 값은 천냥이로다고 외치니 듣는 사람마다 허황하다 하여 따르는 사람이 없기에 그가 스스로 한 노구에게 시험하여 보이니 과연 말과 같은 지라. 그제야 모든 사람이 서로 앞을 다투어 모여오니 승천하였느니라. (예시 61절)

위의 여동빈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1. 여동빈이 장생술을 전하려고 빗장사로 변장함
2. 여동빈이 빛으로 머리를 빗으면 노구가 청춘이 된다하고 빛 값을 천냥이라 하니 허황된 말이라 하고 아무도 믿지 않음.
3. 이때 여동빈이 빛으로 노구에게 시험하니 그의 말대로 되자 사람들이 모였으나 여동빈은 승천함.

위 내용은 여동빈의 말이 허황하다하여 믿는 이가 없었으나 진짜 그의 말대로 되어 사람들이 다투어 모이나 여동빈은 승천하였다는 것으로 믿음의 본질이 어떠한가를 보여 준다. 이 이야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믿음이란 선행적(先行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믿으라 했을 때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결과가 있기 전에 보이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결과를 보고 그때서야 나타내는 마음과 행동은 믿음에 있어 소용이 없음을 상제는 강조하고 있는데, 이점이 대순사상에서의 믿음의 본질로 중요함을 볼 수 있다.

때론 믿어야 할 내용이 비현실적이고 허황한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이때 보이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 된다는 것이다. 모든 종교는 예언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은 비현실적이고 허황한 내용으로 보일 수 있으나 진정한 믿음이란 이러한 차원에까지 따라가 보이는 마음과 행동이라는 것이다. 어느 누구나 일상의 확실한 것들은 믿기에 쉬운 일이다. 위의 인용 설화를 볼 때 이것은 진정한 믿음의 깊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들을 접하고 보일 수 있는 믿음이 상제가 말하려는 믿음의 본질임을 위의 「여동빈의 빛」 이야기에서 엿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 내용도 허황한 얘기로 볼 수 있으나 병겁(病劫)에 관하여 현실적 상

황하에서 이루어진 공사로 기록되어 있는 점이 구별된다.

상제께서 하루는 공우에게 마음속으로 六任을 정하라고 명하셨도다. 공우가 생각한 여섯 사람 중 한 사람이 불가하다 하시여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정하였더니 이 사람들을 부르사 불을 끄고 동학 주문을 외우게 하여 밤새도록 방안을 돌게 하다가 불을 켜 보게 하시니 손씨가 죽은 듯이 엎어져 있느니라. 상제께서 “나를 부르라”고 그에게 이르니 그는 겨우 정신을 돌려 상제를 부르니 기운이 소생하니라. 상제께서 이 일을 보시고 종도들에게 “이는 허물을 지은 자니라. 이후에 괴병이 온 세상에 유행하리라. 자던 사람은 누운 자리에서 앉은 자는 그 자리에서 길을 가던 자는 노상에서 각기 일어나지도 못하고 옮기지도 못하고 혹은 엎어져 죽을 때가 있으리라. 이런 때에 나를 부르면 살아나리라.”고 이르셨도다.(예시 41절)

이와 함께 병겁의 유행은 다음의 내용에서 병겁과 관련된 속담을 인용해 믿음의 전형으로 강조되고 있다.

또 이르셨도다. “부녀자들이 제 자식이라도 비위에 맞지 아니하면 급살 맞으라고 폭언하나니 이것은 장차 급살병이 있을 것을 말함이니라. 하루에 짚신 세켈레를 닿기면서 죽음을 밝아 병자를 구하러 다니리니 이렇게 급박할 때 나를 믿으라고 하면 따르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으리오. 그러므로 너희는 시장판에나 집회에 가서 내 말을 믿으면 살 길이 열릴 터인데 하고 생각만 가져도 그들은 모르나 그들의 신명은 알 것이니 덕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예시 43절)

위에서 「급박할 때 나를 믿으라고 하면 따르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으리오」라고 한 부분은 여동빈의 빛 이야기에서 빛의 효능이 사실로 나타나자 사람들이 다투어 모였다는 내용과 그 의미가 상통한다. 이와 함께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덕(德)으로서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있을 예언적 사실들과 연관되어 믿음에 대한 중요성이 좀 더 급박한 상황으로 비유되어 표현되고 있다. 예언적 내용은 병겁에 대한 것이다.

상제께서 앞날을 위하여 종도들을 격려하여 이르시니라. “바둑에서 한수만 높으면 이기나니라. 남이 모르는 공부를 깊이 많이 하여두라. 이제 비록 장량(張良), 제갈(諸葛)이 쏟아져 나올지라도 어느 틈에 끼어 있었는지 모르리라. 선천개벽 이후부터 水루과 난리의 겁재가 번갈아 끊임없이

이 세상을 진탕하여 왔으나 아직 병겁은 크게 없었나니 앞으로는 병겁이 온 세상을 뒤덮어 누리에게 참상을 입히되 거기에서 구해낼 방법이 없으리니 모든 기이한 법과 진귀한 약품을 중히 여기지 말고 의통을 잘 알아 두라. 내가 천지공사를 맡아봄으로부터 이 동토에서 다른 겁재는 물리쳤으나 오직 병겁만은 남았으니 몸 돌이킬 여가가 없이 홍수가 밀려오듯 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공사 1장 36절)

위와 같은 병겁에 대한 내용은 여동빈이 말한 빛의 효능처럼 허황한 얘기로 여기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상제의 천지공사(天地公事)로 다가올 세상의 변화에 대해 앞의 여동빈의 설화에서 이루어진 빛의 기적처럼 믿어야됨을 암시하고 있다.

여동빈의 설화를 통해 강조되고 있는 믿음은 「너희들이 믿음을 나에게 주어야 나의 믿음을 받으리라」(교법 1장 5절) 고 한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믿음이란 어떠한 예언에 대해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보이는 마음과 행동에서 믿음의 본질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한편 여동빈 설화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믿음의 부분은 물질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빛 하나에 천냥」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허황되며 여기에는 천냥이라는 물질(物質)에 대한 인간 마음의 시험이 들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허황된 말이나 만약 빛 값이 싸다면, 믿음의 차원과 관계없이 그 빛을 사서 믿음이 없이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빛의 값이 천냥이므로 진정한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다. 물질적 문제와 함께 또 그 빛으로 나타날 내용들도 황당무계해서 더, 더욱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상제는 물질을 뛰어 넘어 믿음을 보이기가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부귀한 자는 자만 자족하여 그 명리를 돌우기에 마음을 쏟아 탄 생각을 머금지 아니하나니 어느 겨를에 나에게 생각이 미치리오. 오직 빈궁한 자라야 제 신세를 제가 생각하여 도성 덕림을 하루 속히 기다리며 운수가 조아들 때마다 나를 생각하리니 그들이 내 사람이니라.(교법 2장 8절)

믿음을 주제로 한 설화로 다음의 「십년 머슴 이야기」를 들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가져야 될 믿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내용이 된다.

보라 선술을 얻고자 십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그의 성의로 하늘에 올림을 받은 머슴을. 그는 선술을 배우고자 스승을 찾았으되 그 스승은 선술을 가르치기 전에 너의 성의를 보이라고 요구하니라. 그 머슴이 십년 동안의 진심갈력(盡心竭力)을 다한 농사 끝에야 스승은 머슴을 연못가에 데리고 가서 “물위에 뻗은 버드나무 가지에 올라가서 물위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선술에 통하리라”고 일러주었도다. 머슴은 믿고 나뭇가지에 올라 뛰어내리니 뜻밖에도 오색 구름이 모이고 선악이 울리면서 찬란한 보연이 머슴을 태우고 천상으로 올라가니라.(예시 83절)

위의 이야기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1. 머슴이 선술을 배우고자 스승을 찾음.
2. 스승은 선술을 배우기 전에 먼저 성의를 보이라고 함.
3. 십년이 지난 어느날 스승은 선술을 가르치지 않고 연못가로 데리고 감
4. 스승은 머슴에게 버드나무 가지위에 올라가서 물위로 뛰어내리면 선술에 통한다고 함.
5. 머슴은 스승의 말을 믿고 물위로 뛰어내림
6. 이때 찬란한 보연이 머슴을 태우고 천상으로 올라감.

믿음과 관련 머슴이 물위에 뛰어내려야 한다는 내용은 머슴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믿음의 차원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머슴이 십년 동안의 머슴살이 끝에 버드나무가지 위에서 물위로 뛰어 내린 줄거리는 머슴이 간직한 믿음의 깊이를 잘 보여준다. 십년 동안의 머슴살이는 그 기간이 머슴의 정성과 함께 스승의 말에 대한 머슴의 믿음이 얼마나 깊고 변함없었는가를 말해준다. 이 십년간의 기간은 스승이 선술(仙術)을 배우는데 있어 마음을 닦는 기간으로 제한된 수행의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선술에 통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고 선술을 가르쳐줄 스승의 말을 변함없이 믿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십년간의 정성과 진심갈력(盡心竭力)의 믿음이 지난 후에 스승이 요구한 믿음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상제가 종도들에게 전하려는 믿음의 깊이가 어떠한가를 상징적으로 잘 말해 주고 있다. 십년

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의 각고의 노력이 끝나고 이제 선술을 배우게 될 줄 알았던 머슴에게 제시된 화두(話頭)는, 버드나무에 올라가 연못에 뛰어 내리는 일이 선술에 통하는 조건이 된다는 것으로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이 선술을 배우게 되는 요건으로 머슴에게 다가온 것이다. 여기에는 이 이야기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스승의 말에 대한 믿음의 차원이 최종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 놓을 수 있는 스승에 대한 믿음이 결국 선술에 통하게 된다는 것이 이야기의クライ막스이다. 십년간의 머슴살이는 죽음까지 뛰어넘은 믿음을 이루게 하는 과정이었고 인간의 정성을 알아보는 시험의 기간이 된 것이다.

이러한 죽음의 차원까지도 뛰어 넘는 믿음의 깊이는, 상제가 화천하며 종도들에게 역설한 상제에 대한 믿음으로 제시되어 인간이 보여야 될 믿음의 차원을 더 하고 있다. 상제는 화천(化天)하며, 화천은 천지공사를 완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밝히고 다시 출세할 터이니 그때까지 믿고 수행을 잘 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여기에는 상제의 화천의 문제가 종도들에게 다가오며 그것을 종도들이 어떻게 잘 극복하면서, 믿음을 변치 않고 간직하느냐의 문제가 대두된다. 달리 보면 종도들에게는 스승으로 모셨던 상제의 화천이란 스승의 화천이란 점으로 볼 때 앞의 십년 머슴이 자신의 죽음을 뛰어넘는 신의를 보인 차원의 믿음과 비교될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도들이 스승인 상제가 없는 상황에서 상제의 출세를 믿고 십년 머슴이 보였던 믿음을 상제의 출세 때까지 간직해 나가는 일은 한 차원 높게 믿음의 깊이가 수행적 의미로 종도들에게 다가온 것이다.

또한 그 이면에는 상제가 우주적 질서의 조정을 위해 화천을 하였지만 여기에는 믿음의 깊이를 시험하는 과정이 함께 내면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상제의 선술에 통하기 위해서 종도들이 보여야될 믿음의 깊이가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접할 수 없는 화천한 상제에 대해 보이는 신념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절대적 신념의 발현이 된다 하겠다. 주지의 사실로 이러한 부분은 상제 화천후 나타난 종도들의 대립과 갈등, 증산교단의 분열상을 통해 현실적 의미로 드러난 바

있다.

화천에 있어 우리는 인격화 된 신의 행적을 보고 믿게 되고 다시 그 인격 신이 천상 신의 자리로 등극하게 된 현실속에서 권화(權化)된 모습의 인격으로서 보여 주었던 상제의 권능을 계속 간직하는 믿음으로의 전환을 보게 된다. 이제 상제에 대한 믿음은 상제 자신이 인격신으로서 들려주었던 구천과 강세의 이유를 간직한 채 인간들에게 다시 구천의 신으로서 강세에 대한 대망이 아닌 완성된 세계를 이를 출세의 대망(大望) 신앙으로 형성되게 된다. 이제 인간 세상에는 출세에 대한 대망과 믿음이 새로운 믿음의 요소를 형성시키며 「십년머슴이야기」에서 머슴이 버드나무가지에서 연못으로 뛰어 내려 선술에 통하였던 극적인 순간의 믿음과 같은 신행(新行)이 요구되는 현실적 상황을 상제의 종도들은 접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정제되고 고도화 된 자기 수행의 진면모가 표출됨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신앙 대상에 대한 믿음이 종도들의 과거의 종교 경험과 이어지며 안팎의 시련과 부딪히는 가운데 좀 더 깊이 있는 수행의 세계를 열어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을 다른 『전경(典經)』 구절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믿음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외부적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상태임을 아래에서 찾을 수 있다.

공우는 종도들이 모두 상투를 들고 있는데 자신이 삭발하였기에 그들과 싸이기 어려우므로 불안하게 생각한 나머지 머리를 길러 솔잎 상투에 갓 망건을 쓰고 다니다가 金溝를 지나던 어느날 일진회의 전 동지 십여 명을 만나 그들의 조소를 받고 머리를 깎여 두어달 동안 바깥 출입을 금하고 다시 머리를 기르는 중이었던도다. 돌연히 상제께서 찾아오셔서 한 동안 출입하지 않는 까닭을 물으시니 공우가 사실 그대로 아뢰이니라. 상제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오직 마음을 볼 뿐이로다. 머리와 무슨 상관 하리요.” 이 말씀을 하시고 공우를 데리시고 구릿골로 떠나셨도다.(교법 2장 10절)

이 마음은 일심(一心)으로 귀착되며 일심은 신조(信條)의 사강령(四綱領)중 신(信)에 대한 정의에서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다.

한 마음을 정한 바엔 이익(利益)과 손해(損害)와 사(邪)와 정(正)과 편

벽(偏僻)과 의지(依支)로써 바꾸어 고치고 변하여 옮기며 어긋나 차이가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하며 하나를 둘이라 않고 셋을 셋이라 않고 저것을 이것이라 않고 앞을 뒤라 안하며 만고(萬古)를 통(通)하되 사시(四時)와 주야(晝夜)의 어김이 없는 것과 같이 하고 만겁(萬劫)을 경과(經過)하되 강하(江河)와 산악(山岳)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이 하고 기약(期約)이 있어 이르는 것과 같이 하고 한도(限度)가 있어 정(定)한 것과 같이 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며 정성(精誠)하고 또 정성(精誠)하여 기대(企待)한 바 목적(目的)에 도달(到達)케 하는 것을 신(信)이란 한다. (『대순진리회 요람』 16-17면)

인간의 일심은 상제가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한결같은 믿음에서 일심은 이루어지는 것이며 상제가 서측에 있을지라도 인간을 찾게 되는 조건의 근원이 인간의 믿음에서 발원함을 알 수 있다.

내가 비록 서측에 있을지라도 일심을 가지는 자에게 빠짐 없이 찾으리라.(교법 2장 13절)

믿음에 근원하는 일심은 결국 인간의 복록(福祿)을 결정짓게 되는 것으로 이점이 신앙적 믿음에 의해 인간이 받게 되는 결과물이라 할 수 있으며 만사(萬事)를 이루게 하는 마음의 요소라 볼 수 있다.

인간의 복록은 내가 말았으나 맡겨 줄 곳이 없어 한이로다. 이는 일심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일심을 가진 자에게 지체없이 베풀어주리라. 이제 범사에 성공이 없음은 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한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한할 것이로다. 안 되리라는 생각을 품지 말라.(교법 2장 4, 5절)

믿어야 될 요체는 상제의 말로 귀결되어 그 말이 약이 되고 병을 치유하며 죄를 없애주는 신비스러운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인간의 믿음이 상제의 말에 귀결되어 실천될 때 이루어지는 결과이다.

상제께서 정미년 정월에 형렬에게 가라사대 “나의 말이 곧 약이라.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위안하기도 하며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거슬리게도 하며 말로써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며 말로써 죄에 걸린 자를 풀어주기도 하니 이것은 나의 말이 곧 약인 까닭이니라. 충언(忠言)이 역이(逆耳)로되 이어행(利於行)이라. 나는 허망한 말을 아니하나니 내 말을 믿으라” 하셨도다. 대인의 말은 구천에 이르나니 또 나의 말은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니 잘 믿으라.(교법 2장 1, 2절)

상제는 자신을 믿는 것이 하늘에 대한 믿음보다 큰 차원임을 『나를 믿고 마음을 정직히 하는 자는 하늘도 두려워하느니라』(교법 2장 7절)고 밝히고, 인간들이 수행의 결과물로 얻고자 하는 해인(海印)의 경지도 자신을 믿는 신심(信心)에서 이루어짐을 언급했다.

형렬이 명을 좇아 육십사(六十四)괘를 타점하고 이십사(二十四)방위를 써서 올렸더니 상제께서 그 종이를 가지고 문밖에 나가셔서 태양을 향하여 불사르시며 말씀하시기를 “나와 같이 지내자” 하시고 형렬을 돌아보며 “나를 잘 믿으면 해인(海印)을 가져다 주리라”고 말씀하셨도다.(교운 1장 62절)

위와 같은 믿음과 인간 복록의 관계 외에 반대로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했을 때의 결과를 『믿는 자를 손가락으로 세어 꺾었으되 그 자가 배신하여 손가락을 펼 때에는 살아나지 못하리라』(교법 2장 21절)고 밝힘으로써 믿음의 일관성과 일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예언적 내용으로서의 믿음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내용들은 종도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점은 상제의 재세시(在世時)에 종도들이 겪었던 실제적 이야기들을 통해 찾을 수 있으며, 현실적 체험을 통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믿음에 대한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된다.

무신년 七월에 이르러 상제께서 원일을 이끄시고 부안 변산 우금암(遇金岩) 아래에 있는 개암사(開岩寺)에 가시니라. 그때 상제께서 원일에게 삶은 쇠머리 한개와 술 한 병과 청수 한 그릇을 방안에 차리고 쇠머리를 청수 앞에 진설하게 하신 후에 원일을 그 앞에 꿇어앉히고 성냥 세 개비를 그 청수에 넣으시니라. 이때 갑자기 풍우가 크게 일어나고 홍수가 창일하는도다. 상제께서 원일에게 “이제 청수 한 동이에 성냥 한 갑을 넣으면 천지가 수국(水國)이 될지니라. 개벽이란 이렇게 쉬우니 그리 알지어다. 만일 이것을 때가 이르기 전에 쓰면 재해만 끼칠 뿐이니 그렇게 믿고 기다리라”고 일러주시고 진설케 하신 것을 모두 거두니 곧 풍우가 그쳤도다.(공사 2장 27절)

상제가 위와 같이 실제적으로 개벽의 일단을 보여준 이유는 「개벽이란 이렇게 쉬우니 그리 알지어다. 만일 이것을 때가 이르기 전에 쓰면 재해만

끼칠 뿐이니 그렇게 믿고 기다리라」는 부분에 잘 나타나 있다. 지금 인간이 가져야될 자세는 올바른 가치관을 열어 세상을 구제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과 같은 일이 있기 전에 신원일은 개인적 욕망에 치우쳐 상제의 인간존중의 사상과 호생의 덕에 의한 인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다음에 나타난다.

신 원일이 개벽공사를 빨리 행하시기를 상제께 간청하니라. 상제께서 “인사는 기회가 있으며 천시는 때가 있으니 그 기회와 때를 기다릴 것이니 이제 기회와 천시를 억지로 쓰면 그것은 천하에 재화를 끼치게 될 뿐이며 억조의 생명을 억지로 앗아가는 일이 되리라. 어찌 차마 행할 바 이냐”고 말씀하셨으며 원일이 “방금 천하가 무도하여 선악을 분별하기 어려우니 속히 이를 잔멸하고 후천의 새 운수를 열어주시는 것이 옳을까 하나이다”고 말하면서 간청하니 상제께서 심히 괴로와 하셨도다.(공사 2장 24절)

이와 같이 후천의 새 운수를 열어주기를 바라는 신 원일은 상제 권능에 의한 실제적 상황을 목격하고 외경(畏敬)의 마음을 갖게 되는 데 이러한 상황은 상제에 대한 신앙심을 깊게 하는 면으로 작용하게 됨을 그의 행동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상제께서 원일을 곧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도다. 원일이 집에 돌아와서 보니 자기 동생의 집이 폭우에 파괴되고 그 가족은 원일의 집에 피난하였도다. 원래 원일의 아우는 상제를 믿지 아니 하였으며 언제나 불평을 품었도다. 그러나 그는 이일을 당한 후부터 두려워서 무리한 언사를 함부로 쓰지 아니하였도다.(공사 2장 28절)

상제의 제세시의 신비적 예언이 시간이 흘러 현실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예언이 갖고 있는 믿음의 속성이 발현된 것으로 천지공사 후에 있게 된 상황하에서 현재까지 신앙적 믿음의 형성에 일련의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동양 형세가 그 존망의 급박함이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있으므로 상제께서 세력이 서양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공사를 행하셨도다.(공사 1장 12절)

“이제 동양 형세가 위급함이 누란과 같아서 내가 붙잡지 아니하면 영원

히 서양에 넘어가리라” 깊이 우려하시사 종도들에게 계묘년 여름에 “내가 일로전쟁(日露戰爭)을 붙여 일본을 도와서 러시아를 물리치리라”고 말씀하셨도다. 또 상제께서 “이제 서양사람의 세력을 물리치고 동양을 붙잡음이 옳으니 대신문(大神門)을 열어 사십 구일을 한 도수로 하여 동남풍을 붙어 일으켜 서양 세력을 꺾으리라.”고 말씀하시고 공사를 행하셨도다.(예시 23, 24절)

상제는 동양의 당시 상황에 대해 일련의 공사를 행하였는데 역사적 사실에 있어 아래의 예시(豫示)처럼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승리하게 된다. 상제의 예언적 언어가 현실의 세계에서 구현되는, 신비스러웠던 성(聖)이 속(俗)의 세계에서 성(聖)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믿음을 깊게 하는 신성한 기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제께서 김 병욱에게 “이제 국세가 날로 기울어 정부는 매사를 외국인에게 의지하게 됨에 따라 당파가 분립하여 주의 주장을 달리하고 또는 일본과 친선을 맺고 또는 노국에 접근하니 그대의 생각은 어떠하느냐”고 물으시니 그가 “인종의 차별과 동서의 구별로 인하여 일본과 친함이 옳을까 하나이다”고 상제께 대답하니 상제께서 “그대의 말이 과연 옳도다.”하시고 서양 세력을 물리치고자 신명공사를 행하셨도다.(예시 12절)

상제께서 계묘년에 종도 김형렬과 그외 종도들에게 이르시니라. “조선 신명을 서양에 건너보내어 역사를 일으키리니 이 뒤로는 외인들이 주인이 없는 빈집 들듯 하리라. 그러나 그 신명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제 집의 일을 제가 다시 주장하리라.”(예시 25절)

아울러 위와 같은 사실들은 역사의 장 속에서 다른 몇 가지 사건들과 공존하며, 해원적 관계에서 일본에 대한 조선의 공사가 처결되는 현실적 경험을 하게 되고 이것은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유형화된 사실성 하에서 믿음을 배가화 시키는 작용을 사람들에게 주게 된다.

Ⅲ. 최풍헌 이야기와 믿음

아래의 「최풍헌과 류훈장」의 이야기는 인간 믿음의 깊이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말해 주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특히 상제의 화천(化天)과 출세(出世)에 대한 신심(信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하루는 종도들에게 지난 날의 일을 밝히시니라. “최풍헌(崔風憲)이라는 고흥(高興) 사람은 류훈장(柳訓長)의 하인인데 늘 술에 취해 있는 사람과 같이 그 언행이 거칠으나 일 처리에 남보다 뛰어난지라 훈장은 속으로 그 일꾼을 아꼈도다. 훈장은 왜군이 침입한다는 소문에 민심이 흉악해지는 터에 피난할 길을 그에게 부탁하였으되 풍헌은 수차 거절하다가 주인의 성의에 이기지 못하여 가산을 팔아서 나에게 맡길 수 있나이까 고 물었느니라. 류훈장이 기꺼이 응락하고 가산을 팔아서 그에게 맡겼도다. 풍헌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술을 마시며 방탕하여도 류훈장은 아예 모르는 체 하더니 하루는 최풍헌이 죽었다는 부고를 받고 뜻밖의 일로 크게 낙담하면서 풍헌의 집에 가서 보니 초상이난지라. 그는 하는 수 없이 그의 아들을 위로하고 혹 유언이나 없었더냐고 물으니 그 아들이 “류훈장에게 통지하여 그 가족들에게 복을 입혀 상여를 따라서 나를 지리산(智異山) 아무 곳에 장사하게 하라”고 전하니라. 이 유언을 듣고 류훈장은 풍헌을 크게 믿었던 터이므로 집에 돌아와서 가족에게 의논하였는데 다만 큰 아들만이 아버지의 말씀을 좇는 도다. 사흘이 지나 모두들 운상하여 지리산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산상에서 상여를 버리고 이곳으로 빨리 오르라는 소리가 들리는지라. 모두 그 쪽을 바라보니 최풍헌이라. 모두들 반겨 좇아 올라가니 그 곳의 집 한 채에 풍부한 식량이 마련되어 있느니라. 다시 최풍헌을 따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가리키는 대로 내려다 보니 사방이 불바다를 이루고 있는지라. 그 까닭을 물으니 그는 왜병이 침입하여 마을마다 불을 지른 것이라” 이르도다. (공사 3장 17절)

위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류훈장의 하인 최풍헌은 언행이 거칠으나 일처리에는 뛰어났다.
2. 류훈장은 왜군침입에대한 피난을 부탁했으나 최풍헌이 거절함.
3. 류훈장의 계속된 성의에 최풍헌이 가산을 팔아 맡기라고 하니 류훈장이 그의 말대로 했다.
4. 최풍헌은 류훈장이 맡긴 돈으로 날마다 술을 마시며 방탕하게 생활하였으나 류훈장은 그 일을 모르는 채 그냥 있었다.
5. 어느 날 류훈장은 최풍헌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됨

6. 류훈장이 상가를 찾으니 최풍헌이 「류훈장에게 통지하여 그 가족들에게 복을 입혀 상여를 따라서 나를 智異山 아무 곳에 장사하게 하라」는 유언을 그의 아들로부터 전해들음.

7. 류훈장은 유언을 믿고 상여를 따라 장지인 지리산으로 감.

8. 이때 산상에서 죽었던 최풍헌이 갑자기 나타나 상여를 버리고 산상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그 곳에 가보니 최풍헌이 식량을 준비하고 기다림.

9. 산상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니 왜병이 침입해서 마을이 불타고 있음.

이상의 내용은 류훈장이 최풍헌을 변치 않고 믿어 왜병의 침입으로부터 피난했다는 것으로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가 하는가를 보여준다. 위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믿음의 정도는 신분 계급이 높은 류훈장이 하인에게 임진란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부탁했다는 점과 류훈장이 최풍헌이 요구한 조건인 가산을 맡겼다는 사실 그리고 류훈장이 가산을 탕진하고 죽은 최풍헌을 끝까지 믿었다는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

신분 계급에 있어서 볼 때 당시 반상의 구별하의 제도 속에서 천인 계층인 하인을 믿고 어떠한 일을 맡긴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인데, 류훈장은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피난할 방법을 부탁한 것은 믿음에 있어서 사회 계층적 차별을 극복한 자세를 보여준다.

또한 신분적 차별을 극복하는 것과 함께 더 어려운 조건이 제시되는데 그것이 가산을 맡겨 보라는 것이다. 신분적 차별을 뒤로 하더라도 가산(家産)을 맡기라는 물질적 요구에 인간은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류훈장이 양반 신분으로서 확실히 피난의 길을 찾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하인이 가산까지 맡기라는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나 류훈장이 최풍헌에게 가산을 맡긴 것은 최풍헌을 믿는 마음이 철저했음을 보여준다. 이 부분은 여동빈 설화에서 빗 값이 천냥이라고 한 부분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다음으로 최풍헌이 류훈장이 맡긴 돈으로 무엇을 했는냐가 중요하다. 최

풍헌은 남이 보았을 때 피난의 준비는 하지 않고 그 돈으로 매일 술을 마시고 취해 지냈다는 것이 류훈장의 최풍헌에 대한 믿음에 있어 다시 한번 갈등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렇게 소일(消日)하던 최풍헌이 죽었다는 부고는 류훈장에게 모든 일이 허사로 돌아간 극도의 실망과 후회를 일으키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류훈장은 최풍헌의 죽음뒤의 일까지도 믿는 생사(生死)를 뛰어넘는 초월적(超越的) 신념을 나타내게 된다. 최풍헌의 상여를 따라 오라는 최후의 말까지 믿었던 류훈장은 상대의 죽음까지도 극복해 생사를 초탈한 믿음을 보인 것이다. 결국 이러한 믿음의 차원이 류훈장을 사지(死地)에서 벗어나 살게 하는 요건이 되었다. 신분적 차별을 극복한 믿음으로부터 물질적 차원을 넘어서 보인 믿음과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고 죽은 상대를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을 간직한 류훈장의 이야기는 믿음의 깊이가 어떠한가를 잘 말해 주는 좋은 예이다. 최풍헌이 다시 살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의 상여를 따르는 자를 구하고 식량등 모든 물품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은 최풍헌이 인간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일부러 거짓으로 행동했음을 보여준다.

위의 이야기에서 신분, 물질, 최풍헌의 방탕함은 상제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과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모든 가르침이 새로 출현할 때 그것을 대중들이 쉽게 가까이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상제를 광인으로 잘못 본 일이 위의 최풍헌이 방탕하게 류훈장의 가산을 쓰고 다닌 것에 비유되고 있다. 당시 사회 상황하에서 상제의 가르침은 일반 대중들에게 희망을 주는 혁신적 사상이었지만 한편 허황한 말로 들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다. 그러나 상제는 이것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상임을 실생활 속에서 보여주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일 것을 가르쳤다.

상제에 대해 신분적으로 상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은 자신의 신분을 뒤로하고 상제에 대해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상제는 때로 자신을 따르려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부의 세계를 뛰어넘는 진실한 믿음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상제의 수많은 행적은 당시 사람들에게 상제를 광인(狂

人)으로 보이게 하기도 하였다. 상제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긴 종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 위의 이야기에서 최풍헌이 방탕하게 생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상제가 방탕하게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눈에 비추어진 최풍헌의 모습이 천지공사를 하는 상제에 대해 광인으로 보는 주변인들의 그릇된 시각일 수 있다.

나아가 새로운 세상과 운수에 대한 소망으로 상제를 믿고 따르던 종도들이 상제의 화천을 맞이하게 된 것은 최풍헌의 죽음과 비유된다. 상제가 화천을 하더라도 변함없이 믿고 따르라는 것과 다시 출세(出世) 즉 세상에 다시 온다고 한 것은 최풍헌이 유언을 남기고 그것을 따른 사람들은 살길을 찾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화난을 당한 이야기와 대비된다. 죽었다던 최풍헌이 다시 살아나 살길을 열어준 것은 그의 류훈장에 대한 약속을 지킨 것이며 상제의 미래 어느 시점에서의 출세와 그와 함께 이루어질 상제의 천지공사에 의한 이상세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대중들에게 새로운 유토피아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인내의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위에서 언급한 최풍헌 이야기와 십년 머슴 이야기는 모두 죽음의 상황을 믿음에 대한 하나의 시험대로 설정하고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 점에서 십년 머슴의 경우는 신앙인이 보이는 믿음의 차원이고 최풍헌의 경우는 구원을 해 줄 최풍헌의 죽음과 관련되어 신앙인이 가져야 될 자세를 좀 더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용된 이야기에서의 믿음은 상제의 화천의 문제와 결부된 믿음의 단면으로 그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상제에 대한 믿음이 상제의 강제로부터 출세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 양상을 달리하며 일관되고 있는지를 찾아보고자 한다.¹⁾

1. 동학이 상제 참동학으로 승화된 구원에 대한 믿음

조선후기 내외의 혼란속에 민중이 보였던 믿음의 한 흐름이 동학을 통해

1) 이하의 내용은 신(信)이 삼요체의 하나로서 삼요체의 다른 두 개념인 성(誠)과 경(敬)의 의미와 밀접히 연관되어 통하고 있는데 기인하여 「대순사상논총」 9,10집 필자의 성과 경 관련 줄고(拙稿)를 신과 연관지어 정리 요약한 것임을 밝혀둔다.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동학은 상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출현한 사상임이 『전경』을 통해 나타난다. 동학의 교조 최수운의 죽음과 동학난의 실패는 민중들에게 절망과 패배를 주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상제는 구천이라는 신계에서의 신화적 신비함(신성 불 보살이 상제에게 하소연함)을 갖고 인세에 강세하게 된다. 상제는 강세의 동기를 동학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상제는 성공하지 못한 동학을 승화시켜 민중의 대망을 이룬다는 의미로 참동학이라는 용어를 통해 자신의 사상을 명명하고 있다.

“나는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삼계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혁하여 선경을 열고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들을 건지려고 너의 동방에 순회하던 중 이 땅에 머문 것은 곧 참화 중에 묻힌 무명의 약소 민족을 먼저 도와서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주려 하노라. 나를 좇는 자는 영원한 복록을 얻어 불로 불사하며 영원한 선경의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참 동학이니라. 궁을가(弓乙歌)에 조선강산명산(朝鮮 江山 名山)이라. 도통군자(道通君子) 다시 난다”라 하였으니 “또한 나의 일을 이름이라 동학 신자간에 대선생(大先生)이 갱생하리라고 전하니 이는 대선생(代先生)이 다시 나리라는 말이니 내가 곧 대선생(代先生)이로다”라고 말씀하셨도다.(권지 1장 11절)

상제는 동학 신자들간에 최제우의 갱생을 대선생(大先生)이 갱생한다고 하는 것을 최제우의 갱생이 아닌 상제 자신의 강세로 깨우치고 대선생의 대가 큰 대(大)자를 쓴 대선생(大先生)이 아닌, 대신할 대(代)자를 쓴 대선생(代先生)으로서의 자신임을 밝혔다. 원래 대선생은 동학에서 수운을 부르는 호칭이었다. 대선생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동학 신도들의 믿음에 빚대어, 증산은 이는 대선생인 수운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운을 대신한 대선생인 자신의 탄생을 가리킨 예언이라고 풀이했다. 이러한 독특한 해석을 통해 증산은 대선생인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믿는 이야기말로 바로 참 동학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증산은 수운과 연관하여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 있으며, 수운의 활동에 근거하여 자신의 일을 설명하였다.(김탁, 1995: 161) 증산은 동학의 발생 자체가 자신의 계시로 인해 가능했던 일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증산은 수운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준 상제 또는 한울님으로 믿어진다. 증산교의 이러한 믿음은 한국종교사에서 또 다른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선계의 절대적 권능을 지닌 최고 주재자가 인간 세

상에 직접 강림했다는 증산의 주장은, 이전의 한국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이다. 지상의 인간에게 계시를 내려주었으나 그가 맡은 바 신명을 다하지 못하자 이제 직접 인간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증산교의 믿음은, 세계종교사에서도 독특하게 평가받아야 할 정도이다. 물론 증산의 이러한 주장은 시대적으로 앞선 동학을 창조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증산은 수운의 죽음과 자신의 출생 사이의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자신이 동학의 완성자로서 이 땅에 강림했다고 주장하였다.(김탁, 1995: 175) 이와 같은 동학과의 관련성은 동학난에까지 연결되어 상제의 위상을 밝히고 있다. 상고시대의 치우와 황제의 사례를 인용해 보이고 당시의 전봉준의 동학 난으로 야기된 천하의 난을 스스로 치란하기 위해 강세했음을 보였다.

“난을 짓는 사람이 있어야 다스리는 사람이 있나니 치우(蚩尤)가 작란하여 큰 안개를 지었으므로 황제(黃帝)가指南車(指南車)로써 치난하였도다. 난을 짓는 자나 난을 다스리는 자나 모두 조화롭다. 그러므로 최제우(崔濟愚)는 작란한 사람이오 나는 치란하는 사람이니라. 천명숙은 천하에 난을 동케 하였느니라.(교범 3장 30절)

그 점은 동학 난의 실패를 예견하고, 이제 동학의 주문으로는 상제의 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과 향후 주문에 의해 받는 강은 상제에 의해 있게 되는 천강(天降)이며 의통(醫通)과 관계되는 영역임을 밝힌 부분들에서 엿볼 수 있다.

전봉준(全 琫準)이 학정(虐政)에 분개하여 동학도들을 모아 의병을 일으킨 후 더욱 세태는 흉동하여져 그들의 분노가 충천하여 그 기세는 날로 심해져가고 있었도다. 이 때에 상제께서 그 동학군들의 전도가 불리함을 알으시고 여름 어느날 <월흑안비고 선우야둔도 육장경기축 대설만궁도(月黑雁飛高 單于夜遁逃 欲將輕騎逐 大雪滿弓刀)>의 글을 여러 사람에게 외워주시며 동학군이 눈이 내릴 시기에 이르러 실패할 것을 밝히시고 여러 사람에게 동학에 들지 말라고 권유하셨느니라. 과연 이 해 겨울에 동학군이 관군에게 패멸되고 상제의 말씀은 쫓은 사람은 화를 면하였도다.(행록 1장 23절)

상제께서 어느날 한가로히 공우와 함께 계시는데 이 때 공우가 옆에 계시는 상제께 “동학주(東學呪)에 강(降)을 받지 못하였나이다”고 여쭙니

“그것은 다 제우강(濟愚降)이고 천강(天降)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도다. 또 “만일 천강을 받은 사람이면 병든 자를 한번만 만져도 낫게 할 것이며 또한 건너다 보기만 하여도 나올지니라. 천강(天降)은 뒤에 있나니 잘 닦으라”고 일러주셨도다.(교운 1장 58절)

이처럼 증산은 동학의 주문은 한계를 지닌 불완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증산은 동학의 주문수련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적은 수운 최제우의 개인적인 능력에 근거하여 일어나는 신비체험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하늘의 능력에 기인하는 천강(天降)을 받은 사람은 동학의 주문을 외워서 얻는 이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정도로 엄청난 수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증산은 천지를 개벽하고 인간과 하늘의 혼란을 바로잡는 일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것이 바로 동학이 진정으로 바라던 일이었다고 말한다.(김탁, 1995:169) 신인(神人)은 천명(天命)과 신교(神敎)를 임의대로 행사하고 도통의 대두목과 천강(天降)을 내려주는 권능의 소유자로 나타나는데 수운 최제우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렸다는 점은 동학과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은 수운(水雲)이 밝힌 상제와 상제로서의 증산이 같은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면을 시사하는 것이다.

2. 상제의 권능에 대한 믿음의 형성

상제가 보였던 천지공사에서의 권능(權能), 예지(豫智), 제생(濟生)은 대중들에게 상제에 대한 믿음을 불러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 상제를 경외하는 신앙의 형태가 점차 갖추어지게 된다. 이점은 종교 경험을 전제로한 것으로 신앙은 논증될 수 있는 지식에 기초했다기 보다는 내적 경험에 기초를 둔 내적 확신이기 때문에 심벌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의미 이해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황선명, 1992 : 124-125)

상제가 재세시에 상제를 따르던 민중들에게 보여준 다양한 권능은 상제에 대한 믿음을 갖게하는 중요한 신앙적 요소들이 된다. 이에 상제의 치병 행적과 천지인 삼계에 용사된 권능의 양상을 정리하고 이를 상제에 대한 믿음의 내용으로 삼고자 한다. 이 믿음은 신이(神異)한 권능과 그에 따른 외경심(畏敬心)이 바탕이 되어 믿음의 차원으로 이어지는 종교의 일반적 경향에

근거한 것이다.²⁾ 상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병을 다스리는 치병을 행하였으며 만국의원(萬國醫院) 공사를 통해 제병을 구현하였다. 치병의 행사는³⁾ 병의 원인을 상세히 찾아내 치유하는 상제의 권능에 기인한다.

상제께서 환자를 대하실 때에 환자의 가슴과 배속을 들여다보시는 듯이 經絡과 臟腑를 낱낱이 가리키시며 이 곳은 어디이고 저 곳은 어디이며 어느 장부에서 병이 났고 또 누릿누릿하게 장부에 끼어 있는 것이 담이라 하시며 하나하나 환자가 알도록 가르쳐 주셨도다.(제생 1절)

상제는 각각의 환자들에게 맞는 의법(醫法)을 베풀어 병을 직접 치유하거나 대속(代贖)을 통해 여러 질병을 없애고자 하였다.⁴⁾ 종도들은 천하가 무도(無道)하다고 하며 상제에게 개벽공사를 속히 행할 것을 간청한다.⁵⁾ 그러

2) 이하의 내용은 필자의 拙稿 「대순사상논총」(7,8,9집)의 내용을 요약 수정한 것이다.

3) 病을 치료하는 면에 있어, 古代 巫의 三職能은 司祭者, 醫巫, 豫言者인바 祭禮를 행하여 공물을 올리고 기도를 함으로써 惡神, 惡靈을 驅除하는 醫巫에 관한 기록이 있다. 샤아먼敎는 惡精을 驅逐하기위하여 藥물을 쓰지 않고 魔術을 쓴다. 질병같은 현상은 귀신의 작용에 의한 것이며 이곳을 치료하여 원상복구하려면 외부에서 침입한 神鬼를 내쫓아야한다. 이 퇴귀방법에 있어 藥물의 복용이나 의약에 의하지 않고 마술을 써서 신귀를 퇴거하는 방법은 고대무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醫巫의 기능이다.(任東權,1991:290)

4) 상제께서 처음으로 醫法을 花亭洞에서 베푸셨도다. 李京五는 花亭洞에 사는 사람이라. 어느날 그와 친분이 있는 박금곡이란 大院寺 주지가 경오의 신병을 아뢰고 심방을 상제께 간청하므로 상제께서 그의 병세를 보시니라. 왼쪽 발가락이 저리고 쭈시며 오후부터 새벽까지 다리가 부어 기둥과 같이 되는지라. 그러나 그 부기가 아침에는 내렸다가 정오경에 원상대로 회복되다가도 오후에 붓기 시작하느니라. 이 증세가 삼사년 계속되어 이제 촌보를 옮기지 못하고 앉은뱅이 노릇을 하게 되셨도다. 상제께서 진맥하시기를 “진실로 괴상한 병세로다. 모든 일이 적은 일로부터 큰 일을 헤아리나니라. 내가 이 병으로 표준을 삼고 천하의 병을 다스리는 시험을 하리라.” 상제께서 손수 다리 끝까지 만지고 추녀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서 씻으라 이르시니라. 경오 명하신 대로 하니 곧 나오니라.(제생 2절) 이 무렵에 괴질이 淸州와 羅州에 창궐하여 인심이 흉흉한지라. 상제께서 “남북으로 마주 터지니 장차 무수한 생명이 잔멸하리로다”고 말씀하시고 글을 써서 괴질 신장에게 “胡不犯帝王將相之家 犯此無辜蒼生之家乎”라 칙령하시고 “내가 이것을 대속하리라”고 말씀하시니라. 상제께서 형렬에게 새 옷 다섯 벌을 급히 지어오게 하시니라. 가져온 옷으로 상제께서 설사하시면서 다섯번 갈아입고 “약한 자는 다 죽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도다. 이후부터 그 괴질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없어졌도다. (제생 23절)

5) 상제께서 “내가 삼계 대권을 主宰하여 선천의 모든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새 운수를 열어 선경을 만들리라”고 종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도다. 그 때가 더딘 것에 종도들이 한탄하면서 하루 바삐 상제께서 개벽을 이룩하

나 구천상제는 기회와 때를 역설하여 호생의 덕에 의해 공사를 통해 개혁이 때를 맞춰 인간 생명존중(人間生命尊重)의 정신하에 있게 됨을 실예로 보여 준다.

제생 방법에 있어서는 개략적으로 주문(呪文)이나 글로 기운을 응하게 하거나(제생 7,10,14,20절) 병의 전이(轉移)로 치병하는 것이 있다.(제생 6,24,31절) 또 음식(제생 22,35,39절), 약재(37절), 심고(心告)(12절) 그리고 말씀(8절)이나 상제님의 방문(44절)등을 통해 치병이 이루어진다.⁶⁾ 권지(權智) 편에서는 청수를 떠놓고 기도 발원함으로서 황응중 아들의 병이 낫고(권지 2장 12절), 병으로 정신이 아득할 때 받은 계시를 따라 구천상제에게 사배를 올리고 병이 쾌유된 경우도 보인다.(권지 2장 28절)

위와 같은 치병의 단계를 넘어 상제가 전주 동곡에 약방 설치하는 우주를 치유하기 위한 의세공사(醫世公事)로 「元亨利貞 奉天地道術藥局 在全州銅谷生死辦斷」이라는 내용에서 동곡약방이 단순히 병자를 구하는 차원이 아닌 천하개병의 형세속에서 천지도술(天地道術)을 써서 우주의 총체적인 병(病)을 제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아가 동곡약방(銅谷藥房)의 설치는 종국적으로 만국의원의 설치를 통해 각종 원인으로 야기된 우주의 병을 모두 제거해 불노불사(不老不死), 불노장생(不老長生)의 세계를 구현하는 일로 연결돼 있다.

위와 같이 상제가 직접 보여준 권능에 의한 치병은 그 치료를 받고 완쾌된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것과 함께 일반 대중들도 신앙적 믿음을 깊이할 때 치병의 행적을 발휘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더욱 더 상제에 대한 믿음의 차원을 더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시기만 기다리는 도다.(권지 1장 21절)

- 6) 민간의료의 신앙 치료는 신성에 의존하고 있다. 질병의 치료방법은 a. 神이나 神秘的 존재에게 비는 방법 b. 病原인 雜鬼나 神秘的 存在를 축출하는 방법 c. 환자를 소거시켜 건강한 몸으로 다시 재생시키는 방법이 있고 이것은 모두 인간에 의한 물리,약물에 의한 치료가 아니고 인간이외의 신비력에 의해 병이 치료되는 것이라 믿고 있다. 질병의 예방 역시 신비력에 의한 것이어서, 병을 앓는 것은 인간이지만 그 병이 인간의 몸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일상적인 현실계 밖의 비일상적 神聖쪽에서 조정된다고 믿는 것이다.(金泰坤, 1994:310) 醫俗은 목적, 형태, 전승방법에 따라 나누어지고 목적에 따라 예방 醫俗과 치료 醫俗으로 나누어 진다.(李圭昌, 1994:227)

러한 점은 심신(心身) 수행으로 훗날 천강(天降)의 능력을 용사(用事)하는 인물들이 나타나 병을 고친다는 상제의 예언에 관계되는데, 심리적 안정과 외경을 일으키고 이것이 신앙적 믿음의 형성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상제께서 어느날 한가로히 공우와 함께 계시는데 이 때 공우가 옆에 계시는 상제께 “동학주(東學呪)에 강(降)을 받지 못하였나이다”고 여쭙니 “그것은 다 제우강(濟愚降)이고 천강(天降)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도다. 또 “만일 천강을 받은 사람이면 병든 자를 한번만 만져도 낫게 할 것이며 또한 건너다 보기만 하여도 나올지니라. 천강(天降)은 뒤에 있나니 잘 닦으라”고 일러주셨도다.(교운 1장 58절)

다음으로 상제가 재세시에 보인 권능과 그에 대한 대중들의 믿음의 형성을 보기로 한다. 상제의 천계대권(天界大權)은 주로 천계 자연현상과 관련된 권능이 중심이 된다. 묵은 하늘로 대표되는 선천을 움직여온 신들의 교체와 조정을 통해 천계는 물론이고 나아가 천의 영향을 받는 인계에도 진법(眞法)을 구현하는 것이다. 천지인 삼계는 유기적으로 신과 연계되어 존재하는 관계이므로 그 작용을 단정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선천 천의 문제를 해결하는 상제 권능에 대한 사례를 『전경』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그 실제적 의미를 찾아보기로 한다. 천계대권은 다양한 면으로 『전경』에 나타나고 천계에서 일어나는 제반 자연현상을 임의대로 용사하는 점이 중심이 된다. 제반의 자연현상(강우)을 임의대로 멈추거나 바꾸는 행적이 기록되어 전한다. 이를 통해 상제에 대한 신앙체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천기(天氣)적인 날씨의 변화를 미리 알고있는 권능하에 상제는 일기의 변화를 임의대로 주재하였으며 글씨나 음식(감주:권지 1장 25절)등을 통해 일기(日氣)조절 공사가 이루어졌다. 관직에서 곤경에 처한 관리를 눈비와 날씨 조절로 민요(民擾)를 없애 구해주는 제생을 상제는 베풀었다. 이 공사에는 종이에 관련된 내용의 글을 써서 소지(燒紙)시키는 방법이 쓰였다. 이러한 대권의 용사속에는 다음의 내용처럼 특히 홍수, 가뭄, 병충해등 자연재해로 농사에 피해를 입어 곤경에 처한 생민(生民)의 삶을 보살펴 주는 상제의 구세제민의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

상제가 보여준 권능과 예지가 종도들로 하여금 외경(畏敬)을 일으키게 하

였고 이것은 믿음의 차원으로 발전하여, 종도들의 입장에서는 절대적 존재로서의 스승을 공경하는 종교적 체험을 하게 된다.

김형렬의 물음에 대해 상제는 진묵이 철일을 걸려 북두칠성을 감쳤으나 그날 밤부터 한 달동안을 북두칠성을 감추는 권능과, 송시열의 주택에 백설이 쌓이지 못하는데 대해 상제가 계신 곳은 백설에도 눈이 쌓이지 못하고 푸른 하늘에까지 맑은 기운이 통하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형렬로 하여금 상제의 권능에 대한 외경속에 신앙심을 형성케 하였다. 그중 송시열 관련 일화는 다음과 같다.

김 형렬은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상제를 모시고 있었도다. 그러던 어느 날 형렬이 상제의 말씀 끝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송시열(宋 時烈)은 천지의 정기를 타고난 사람이고 그가 있는 주택의 지붕에는 백설이 쌓이지 못하고 녹는다 하나이나> 라고 아뢰니 상제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그러하라. 이제 나 있는 지붕을 살펴 보라> 하시니라. 형렬이 밖에 나가 살펴보니 일기가 차고 백설이 쌓였는 데도 오직 계시는 그 지붕에 한 점의 눈도 없을 뿐아니라 맑은 기운이 하늘에 빠져 구름이 가리지 못하고 푸른 하늘에 까지 통하니라. 그후에도 살펴 보면 언제나 상제께서 머무시는 곳에 구름이 가리지 못하는도다.(행록 1장 36절)

상제가 김형렬에게 보여준 권능은 김형렬의 신심을 높이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계기를 통해 김형렬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제에 대한 공경을 더해 나가게 된다.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가뭄에 사람들은 물도랑을 내고 하늘에 비는 일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이다. 김갑철이 가뭄을 해결할 방법으로 상제의 권능을 생각하고 상제를 찾게 된다.

상제께서 인사를 드리는 김갑철(金甲七)에게 농사 형편을 물으시니 그는 “가뭄이 심하여 아직까지 모를 심지 못하여 민심이 매우 소란스럽나이다.”고 아뢰었도다. 상제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네가 비를 빌러 왔도다. 우사(雨師)를 너에게 붙여 보내리니 곧 돌아가되 도중에서 비가 내려도 몸을 피하지 말라”고 이르시니라. 갑철은 발병 때문에 과히 좋아하지 아니하니라. 상제께서 눈치를 차리시고 “사람을 구제함에 있어서 어찌 일각을 지체하리오” 하시고 가기를 독촉하시니라. 갑철이 서둘러 돌아가는 길에 원평에 이르러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도다. 잠깐사이에 하천이 창일하여 나무다리가 떠내려 가게 되니라. 행인들은 모두 단비라 일컬으면

서 기뻐하는도다. 흠족한 비에 모두들 단숨에 모를 심었도다.(행록 4장 31절)

이미 그가 온 이유를 알고 있는 상제, 다시 김갑철의 마음에는 인간의 내면을 통찰하고 계신 상제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있게 된다. 속히 민중을 구제하려는 상제의 마음에 대해 김갑철은 자신의 부족했던 마음을 돌아보게 되고, 상제의 명을 받은 자신의 행동으로 모를 심는 민중들을 바라보며 보람과 상제에 대한 공경을 더욱 깊이 새기게 된다. 앞의 경우와 달리 상제는 폭우(暴雨)에 의한 농사 피해에 안타까워하는 김명철에 대해 비를 그치게 함으로써 그의 농토를 보호해준다. 농토는 민중에게 있어 삶의 원천이고 생계의 터전이다. 이러한 농토가 큰 비로 거름이 없어지고 발마저 잃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하에서 상제의 보살핌으로 구제되었을 때 인간 심성의 깊은 곳에서 외경의 마음과 함께 신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연현상을 임의대로 주재하는 상제의 권능에 인간이 외경심을 갖게 되는 것은 비를 내리고 그치게 하는 일에서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상제는 최 창조와 김 형렬의 집에서 뇌성을 일으키는 권능을 보이고 총재(蟲災)를 없애기 위해 뇌성을 일으켜 온 지역 사람들의 농작물을 잘 되게 하였다.

상제께서 추운 겨울 어느날 창조의 집에 오셔서 벽력표를 땅에 묻으시니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천지를 진동하니라. (권지 2장 25절)

상제께서 어느해 여름에 김형렬의 집에 계실 때 어느날 밤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강감찬은 벼락칼을 잇느라 육보는구나. 어디 시험하여 보리라.” 하시며 좌우 손으로 좌우 무릎을 번갈아 치시며 “좋다 좋다” 하시니 제비봉에서 번개가 일어나 수리개봉에 떨어지고 또 수리개봉에서 번개가 일어나 제비봉에 떨어지니라. 이렇게 여러번 되풀이 된 후에 “그만 하면 쓰겠다” 하시고 좌우 손을 멈추시니 번개도 따라 그치는지라. 이튿날 종도들이 제비봉과 수리개봉에 올라가서 살펴보니 번개가 떨어진 곳 곳에 수십장 사이의 초목은 꺾질이 벗겨지고 타 죽어 있었도다.(권지 1장 23절)

종이에 글을 써 만든 벽력표(霹靂票)를 땅에 묻자 천둥과 번개가 치는 일을 목격한 최창조와 봉우리 위에 떨어지는 번개를 본 김형렬과 종도들의 심

경은 그것이 뇌성이라는 점에서 비를 주재한 일에서 느꼈던 심경보다 더 두려운 외경과 놀라움이었을 것이다. 뇌성을 일으켜 생민의 삶을 도와주는 상제의 이적에서 종도들은 외경과 함께 상제의 의지가 제생의세(濟生醫世)에 있음을 깊이 알게 된다. 이처럼 농사일을 주재하는 일만이 아니라 상제에 의한 뇌성은 인간세상의 도와 천륜을 세우는 일로 쓰여져 죄를 응징하는 대개가 되기도 한다.

천연(天緣)으로 이루어진 천륜을 버리고 떠나가는 아낙을 응징하는 상제의 단호함에서 형렬과 원일이 느낀 감회는 천륜으로 세상의 질서를 다시 바로잡고자하는 상제의 의지에 대한 것이었으리라. 다른 경우에 있어 상제에 대한 무례(無禮)에도 크나큰 이해로 임하셨던 상제의 청천벽력 같은 처벌에 두 사람은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멀리해야겠다는 마음과 함께 윤리에 대한 각성을 갖게 되었으며 지엄한 면모를 상제에게서 느꼈을 것이다.

자연계에 나타난 상제의 권능은 바람을 일으키는 초월성으로도 표출되었다. 바람을 일으키는데 있어 제갈량의 과거 예가 비유되고 바람으로 종도 김경학의 집 화재를 끄는 이적이 행해졌다. 자신의 집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의 절박함은 어느 일보다 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능으로 불을 끄는 상제에 대한 김경학의 감사와 외경심은 자연스럽게 신앙심을 형성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상제가 보인 권능은 일반적 정서로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바람으로 불을 끄는 능력, 잘못하면 바람에 더 큰 불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소화(消火)한 상제의 권능은 더 큰 공경의 마음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와 비슷한 예로 기후의 변화를 이용해 민생을 해결한 것은 자연 현상을 임의대로 제어하는 상제의 권능을 보여준다.

갑진년 十一月에 전주에 민요가 일어나서 인심이 흉흉 하니라. 이 소란 중에 상제께서 전주에 이르셨도다. 김 보경이 상제를 배알하니 상제께서 “김 병욱이 국가의 중진에 있으니 민심의 동요를 진무하여 그 천직을 다하여야 할 일이거늘 그 방책이 어떤 것인지” 하시고 궁금히 여기시니 보경이 병욱에게 이것을 전하였느니라. 병욱은 “나의 힘으로 물 끓듯 하는 민요를 진무할 수 없으니 상제의 처분만을 바라옵니다”고 말씀드렸도다. 상제께서 보경으로부터 사정을 알아차리시고 웃으시기만 하시니라. 이날 밤에 눈비가 내리고 몹시 추워져 노영(靈營)에 모였던 민중은 내리는 눈비와 추위에 견디지 못해 해산하고 사흘동안 추위와 눈비가

계속 내리므로 민중이 다시 모이지 못하니 민요는 스스로 가라앉았다.(행록 3장 25절)

이러한 상제의 권능에 대한 외경심은 또 다른 심리적 정서를 갖게 해준다. 인간적 삶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간 세상을 초월해 자연계에까지 미치는 권능으로 인간으로 실재하며 보여주는 능력이 세상을 초극한 계까지 작용한다는 점에서 인간들의 외경심이 절대적 차원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경지가 열리게 된다. 이것은 믿음의 형성이라 볼 수 있다.

낮과 밤을 구분 짓는 것이 일월(日月)의 운행이다. 다음에서 태양의 행을 정지시키는 이적은 비를 내리고 바람을 일으키는 자연현상과는 다른 심정을 인간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상제께서 약방에 계시던 겨울 어느날 이른 아침에 해가 앞산 봉우리에 반쯤 떠오르는 것을 보시고 종도들에게 말씀하시니라. “이제 난국에 제하여 태양을 멈추는 권능을 갖지 못하고 어찌 세태를 안정시킬 뜻을 품으랴. 내 이제 시험하여 보리라” 하시고 담배를 물에 축여서 세 대를 연달아 피우시니 떠오르던 해가 산 머리를 솟지 못하는지라. 그리고 나서 상제께서 웃으며 담뱃대를 땅에 던지시니 그제야 멈췄던 해가 솟았다.(권지 1장 27절)

위에서처럼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와 일정한 운행 규칙속에서 움직이는 행성을 멈추었다 움직이는 광경을 목격하고 생겨나는 감회는, 태양계의 질서를 언제나 새롭게 재편성할 수 있는 위상으로서의 상제에 대한 경외심이며 난국을 능히 바로 잡을 수 있는 존재에 대한 기대와 공경의 심정이라 할 수 있다.

천계 자연현상의 주재,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치도(治道) 공사만이 아니라 삼계 대권의 주재자인 상제는 선천에서 천(天)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하(卑下)되었던 지계에 대한 대권을 용사해 지계 해원을 시켰으며, 각종의 지계대권을 통해 상제의 위상을 종도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였다.

일상의 삶 속에서 땅은 민중들의 생계의 터전이며, 풍수와 관련해 중요한 자리이다. 상제는 땅에 깊은 관심을 갖고 풍수의 이치를 가르쳤다. 땅의 혈음을 공사에 이용하기 위해 차경석 선묘의 금반사치 혈음을 옮겨온 일은 상제의 사상이 일상의 민중들의 생활과 밀접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례와

관련 장지가 의혈이라 하여 김덕찬에게 보인 관심도 땅의 상태를 내다보는 권능과 함께 민중의 일상 정서에 가까이 있는 상제의 모습을 비친 것이다. 이를 통해 그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상제에 대한 친화와 경배가 이룩될 수 있는 신앙의 틀이 만들어졌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기통일을 위해 조선을 중심으로 인간의 생활에 가족의 개념과 통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리키는 산을 택해 부모산의 정기를 뽑고 산하대운을 거두어 강산정기를 통일시켜 보편적 질서를 느끼게 하는 종교심(宗教心)을 상제는 보여 주었다. 부모산(父母山)이라는 친근한 땅의 이미지 생활의 터전이며 생명의 본향인 자연도 부모로 귀착된다는 인간과 땅의 상합적 질서를 느끼게 해준다.

상제께서 각 처에서 정기를 뽑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강산 정기를 뽑아 합치시려고 부모산(父母山)의 정기부터 공사를 보셨도다. 부모산은 전주 모악산(母岳山)과 순창(淳昌) 회문산(回文山)이니라. 회문산에 이십 사혈이 있고 그 중에 오선위기형(五仙圍碁形)이 있고 기변(碁變)은 당노(唐堯)가 창작하여 단주를 가르친 것이므로 단주의 해원은 오선위기로부터 대운이 열려 돌아날지니라. 다음에 네 명당(明堂)의 정기를 종합하여야 하니라. 네 명당은 순창회문산(淳昌回文山)의 오선위기형과 무안 승달산(務安 僧達山)의 호승예불형(胡僧禮佛形)과 장성 손룡(長城 巽龍)의 선녀직금형(仙女織錦形)과 태인 배례전(泰仁 拜禮田)의 군신봉조형(群臣奉詔形)이니라. 그리고 부안 변산에 이십사(二十四) 혈이 있으니 이것은 회문산의 혈수의 상대가 되면 해변에 있어 해왕(海王)의 도수에 응하느니라. 회문산은 산군(山君), 변산은 해왕(海王)이니 상제께서 그 정기를 뽑으셨도다. 상제께서 여름 어느날에 황 용종의 집에서 산하의 대운을 거둬들이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상제께서 밤에 이르러 백지로 고깔을 만들어 용종에게 씌우고 “자루에 든 벼를 꼬집어 내서 사방에 뿌리고 백지 백 이십장과 양지 녀장에 글을 써서 식혜 속에 넣고 인적이 없을 때를 기다려 시궁 흙에 파묻은 후에 고깔을 쓴 그대로 세수하라”고 명하시니 그는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별안간 인당에 콩알과 같은 사마귀가 생겼도다. 용종이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벼를 뿌린 것을 보았으나 한 알도 보이지 않고 없어졌도다.(공사 3장 6,7절)

조선조 말기 봉건체제하의 국가의 수탈로 가중한 세금과 부역에 시달리는 민중들의 일상에 바쁜 생활속에서 생업(生業)을 잠시 접어 두고 상제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것도 농번기에 쉬었다 술이나 먹고 가라는 말씀에 대해 안필성이 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씨나락을

밭에 뜻없이 뿌리는 상제에 대해 근심으로 아무 말도 못하는 안필성의 심정은 당시 사회의 어려움속에서 당장 농사를 망치지 않을까 하는 경제적 문제의 고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상제에 의해 뿌려졌던 씨나락이 다시 모여져 있는 불가사의한 상황하에서 상제의 말씀과 권능에 대한 안필성의 심경은 절대적 힘에 대한 경건(敬虔)한 복종으로 바뀌어 다음과 같은 친근감과 신앙심에 이르는 변화를 자연스럽게 보인다.

안필성(安弼成)이 못자리를 하려고 범씨를 지고 집을 나서려는데 상제를 뵈셨도다. 상제께서 “쉬었다 술이나 마시고 가라”고 말씀하셨으되 필성이 사양하는지라. “못자리를 내기에 바쁜 모양이니 내가 대신 못자리를 부어주리라” 하시고 지게 위에 있는 씨나락 서너말을 망개장이 밭에 다 부으셨도다. 그는 아무런 원망도 하지 못하고 앉아서 주시는 술을 마시면서도 근심하였도다. 주모가 들어와서 씨나락은 가지고 온 그릇에 그대로 있는 것을 알리는도다. 필성은 이상히 여겨 바깥에 나가 뿌려서 흩어졌던 씨나락이 한 알도 땅에 없고 그대로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을 보고 전보다 한층 더 상제를 경대하는도다.(행록 2장 24절)

인간의 무병장수(無病長壽)의 소망은 고래로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다. 금산사 주지 금곡대사에 관한 이야기에서 전생(前生)을 밝히고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일을 금곡이 당하여 상제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생사를 주재하는 대상에 대한 심경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근원의 신앙심을 불러 일으키는 일로 작용해 초월적 존재를 만난 극적인 공경심(恭敬心)을 불러 일으키게 할 수 있다.

인간이 죽음의 지경에서 살아난 경험을 하였을 때 그 심정이 어떠한 것인가는 형언할 수 없는 차원이다. 사지(死地)에서 살아난 자의 살려준 존재에 대한 감사와 경외의 심정을 보게 된다.

오월이 되어 상제께서 본택을 떠나셨으나 가신 곳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도다. 그리하여 매우 염려하는 상제의 부친을 보고 유덕안(俞德安)은 대신하여 상제를 찾으려고 의관을 갖추고 객망리를 떠났도다. 그가 태인(泰仁) 강심리에 이르렀을 때 관군은 의병 두 사람을 잡고 덕안을 동학군으로 몰고 포박하여 전주 용머리 고개 임시 형장으로 끌고 가니라. 두 사람이 먼저 참형되고 덕안의 차례가 되었을 찰나에 하늘이 캄캄하여지고 천둥치고 번개가 번쩍이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지라. 관군들은 지레 겁을 먹고 도망하였으나 비바람은 그치지 않고 밤은 깊어

사방이 보이지 않아 덕안이 정신을 차리니 두 사람의 시체만이 짙은 어둠 속에 텅굴어 있었다. 무서움에 쫓겨 그는 먼 곳에서 비치는 등불을 향하여 지친 몸을 이끌어가니 날이 새기 시작하니라. 등불은 간데 온데 없는 산중이었도다. 그제서야 그는 정신을 차리고 포박을 풀고 재생의 기쁨을 안고 집에 돌아왔느니라. 그는 이 재생의 인도를 호랑이가 불빛을 비쳐 준 것으로 믿었도다. 얼마후 상제께서 객망리에 홀연히 돌아오셨도다. 상제께서 덕안을 보시고 <험한 시국에 위급한 환경을 당하여 고통이 많았도다> 말씀하며 위로하시니 그는 더욱 자신의 재생을 상제의 덕화라고 굳게 믿으며 재생의 감격을 되새기니라. 당시는 가릴사이 없이 마구 죽이는 판국이었던도다.(행록 1장 26절)

죽을 상황에서 신이(神異)로운 자연 현상이 일어나고 그를 통해 살아난 유덕안에게 그가 겪은 일을 알고 말씀하시는 상제는 생명의 은인이며 자연 현상을 임의대로 조절해 어느 곳에 있더라도 화난(禍難)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줄 수 있는 경외의 대상이다. 호랑이가 집근처까지 인도해 살아난 것으로 믿는 마음에서 절대적 존재의 초자연적 힘을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꿈을 통해 보았던 신계의 절대적 존재에 대한 만남이 현실에서 다시 일어난 상황에 대해 갖게되는 감회는 어떠한가.

금구 내주동을 떠나신 상제께서는 익산군 이리(裡里)를 거쳐 다음날 김일부(金 一夫)를 만나셨도다. 그는 당시 영가무도(詠歌舞蹈)의 교법을 문도에게 펼치고 있던 중 어느날 일부가 꿈을 꾸었도다. 한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일부에게 姜 士玉과 함께 玉京에 오르라는 天尊의 명하심을 전달하는도다. 그는 사자를 따라 사옥과 함께 옥경에 올라가니라. 사자는 높이 솟은 주루금궐 요운전(曜雲殿)에 그들을 안내하고 천존을 배알하게 하는도다. 천존이 상제께 광구천하의 뜻을 상찬하고 극진히 우대하는도다. 일부는 이 꿈을 꾸고 이상하게 생각하던 중 돌연히 상제의 방문을 맞이하게 되었도다. 일부는 상제께 요운(曜雲)이란 호를 드리고 공경하였도다.(행록 2장 2절)

꿈은 그저 가상의 무의식의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것인데 그러한 상식을 초탈한 일이 나타난 것에 대해 일부는 그가 꿈에서 보았던 궁전의 이름을 호로 써서 올린다. 이것은 꿈이라는 인간의 정신작용 속에도 상제의 권능이 용사되고 있고 인간의 심리적 움직임까지도 인지해 내는 상제의 위상을 보여준다. 개인의 꿈을 통해 신계를 보여주거나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경우에 일어나는 마음의 동요는, 현실의 세상이 신의 세계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되며 한편으로 죽음과 미래를 보는 시각을 바꾸게 할 수도 있다.

화해(和解)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상제의 공사에서 평화를 이룩하려는 마음을 보고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심리는 어렵고 혼란한 시대상황속에서 새로운 믿음과 희망을 심게 됐다는 것이다.

일진회와 아전의 교쟁이 전주에서 갑진년 七월에 있었도다. 최창권(崔昌權)이란 사람이 부내의 아전을 모아 일진회 타도의 의병을 일으키고 자 각군 각면으로 통문을 보냈도다. 상제께서 이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어렵게 살아난 것이 또 죽겠으니 그들을 내가 제생하리라.” 상제께서 화정리의 李京五를 찾아 돈 칠십냥을 청구하시니 그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였도다. 부득히 다른 곳에서 돈 일곱냥을 구하여 가지시고 “이 돈이 능히 칠십냥을 대신하리라” 말씀하셨도다. 상제께서 형렬을 대동하시고 용머리 주막에 돌아오셔서 많은 사람을 청하여 술을 권하여 나누시고 난 후에 종이에 글을 쓰고 그 종이를 여러 쪽으로 찢어 노끈을 꼬아서 그 주막의 문 들쩌귀와 문고리에 연결하여 두시니라. 그날 오후에 아전과 일진회원 사이에 화해가 이룩되니 일진회원들이 사문을 열고 입성하니라. 이 일에 상제께서 소비하신 돈이 옛날이였도다. 가라사대 “고인은 바둑 한 점으로써 군병 백만명을 물리친다 하나 나는 돈 옛날으로써 아전과 일진회의 싸움을 말렸느니라” 하셨도다.

특히 내부적으로 봉건적 규율의 붕괴와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속에서 나타난 갈등은 민족 내부에 일진회와 아전의 분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적 현실에서 상제가 보인 화해와 평화의 종교적 노력은 민중들에게 오경과 숭배의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동서양의 미래사를 내다보고 인간 개개인의 마음까지도 다 통찰하는 존자에 대한 속일 수 없는 심정에서 인간은 진심을 간직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따라 일어나는 외경심은 도덕적 심성과 함께 새로운 자기 각성의 기회를 열어 주게 될 것이다.

상제께서 김 병욱에게 “이제 국세가 날로 기울어 정부는 매사를 외국인에게 의지하게 됨에 따라 당파가 분립하여 주의 주장을 달리하고 또는 일본과 친선을 맺고 또는 노국에 접근하니 그대의 생각은 어떠하느냐”고 물으시니 그가 “인종의 차별과 동서의 구별로 인하여 일본과 친함이 옳을까 하나이다”고 상제께 대답하니 상제께서 “그대의 말이 과연 옳도다” 하시고 서양 세력을 물리치고자 신명공사를 행하셨도다.(행록 1장

12절)

상제께서 어느날 가라사대 “조선을 서양으로 넘기면 인종의 차별로 학대가 심하여 살아날 수가 없고 청국으로 넘겨도 그 민족이 우둔하여 뒤감당을 못할 것이라. 일본은 임진란 이후 도술 신명사이에 척이 맺혀 있으니 그들에게 일시천하통일지기(一時天下統一之氣)와 일월대명지기(日月大明之氣)를 붙여주어서 역사케 하고자 하나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인(仁)이니라. 만일 인자까지 붙여주면 천하가 다 저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인자를 너희들에게 붙여 주노니 잘 지킬지어다”고 이르시고 “너희들은 편한 사람이 될 것이요. 저희들은 일만 할뿐이니 모든 일을 밝게 하여주라. 그들은 일을 마치고 갈 때에 품 샅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리니 말대접이나 후덕하게 하라” 하셨도다.(공사 2장 4절)

김병욱이 상제의 질문에 답한 것은 당시 현실을 냉철히 인식한 지방 관리의 솔직한 심경일 수 있다. 조정이 무능하여 국가를 운영해 나갈 능력이 없어진 상황하에서 식민지 지배에 나선 서구열강과 일본에 불행히도 조선이 그들의 세력하에 넘어간다면 그 악영향과 피해가 훗날 심각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김병욱은 아픈 마음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위의 일은 어떻게 보면 민중들에게 많은 고통과 슬픔을 만들 수 있지만 거시적 안목에서 조망을 해 본다면 인류사회의 안녕과 조선을 위한 것이었음을 다음의 내용에서 간파할 수 있다.

또 지난 임진 왜란 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성공치 못하고 도리어 세가지의 한만 맺었으니 소위 삼한당(三恨堂)이니라. 첫째로 저희들이 서울에 들어오지 못함이 一한이요. 둘째는 무고한 인명을 많이 살해되었음이 二한이요. 세째는 모 심는 법을 가르쳤음이 三한이라. 이제 해원 시대를 당하여 저들이 먼저 서울에 무난히 들어오게 됴므로써 一한이 풀리고, 다음 인명을 많이 살해하지 아니 함으로써 二한이 풀리고, 세째로는 고한삼년(枯旱三年)으로 백지강산(白地江山)이 되어 민무추수(民無秋收)하게 됴므로써 삼한(三恨)이 풀리리라.(예시 74절)

일본과의 임진란을 배경으로 한 과거사를 밝히고 조선의 당시 현실속에서 대비적으로 과거의 해원을 이룬다는 내용은 역사적 안목에서 상제 사상의 본질에 비추어 보아 큰 설득력을 얻는다. 초월적 지혜가 논리적 예시로 바뀌어 반향감도 일으킬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 더욱 깊은 종교심을 만들게 된

다. 현실적 상황과 미래적 시점에서 상제를 따르던 사람들은 이 공사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며 신앙적 경외심을 형성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의 마음을 읽어내는 차원에서 자신의 방문을 알고 맞이하는 상제를 접하며 류서구는 경송을 하게 된다. 두 번째 방문하는 그에게 그 전의 일을 얘기하며 주효를 준비한 상제의 예지에 대한 놀라움이 일어나고 상제에 대한 공경과 흠모의 정서가 솟어나게 됨을 생각할 수 있다. 경외심의 대상으로서의 천은 우리말로 하늘님으로 불리어져 왔다. 하늘님으로서의 천은 거의 모든 민족의 종교사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보편적인 하늘님을 지고신(至高神) 이라고 종교학자들은 부른다. 지고신의 의사는 오직 자연의 변화를 읽거나 천기를 탐지하거나 또는 제사를 통하여 인간이 감지할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지고신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인간과 의사소통을 한다. 멀리 있는 신으로서의 천은 우주규범이 인격화된 존재이다.(尹以敏, 1991:166-168) 이와 같은 지고신에 대한 민중의 정서가 실제적 생활속에서 인격화되어 상제를 통해 보여짐으로서 신앙에 대한 믿음은 그 깊이를 더하게 되는 것이다. 상제의 초월성은 자연현상을 조절하는 면으로 나타나 비, 뇌성, 바람, 태양 등을 임의대로 다루었는데 이를 목격한 종도의 마음에는 외경심과 그에 따른 신앙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신앙심은 다양한 인간사의 일들을 주재 관장하는 상제의 권능을 접하며 민중들에게 형성되어 그들이 상제를 추종하게 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일상사에서 나타난 상제의 권능이 인간적 차원에서는 외경의 대상이었고 신앙의 기틀은 이러한 신비감에서 뿌리깊게 당시 조선 사회에 퍼져나갔던 것이다.

3. 화천(化天)과 출세(出世) 예언속에 믿음 강조

상제의 화천은 믿음의 양상이 새로이 변화되게 하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 화천과 함께 미래 어느 시점에 상제가 다시 세상에 올 것이라는 출세에 대한 믿음이 상제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시된다. 출세에 대한 믿음을 통해 상제를 신앙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차원으로 들어감을 볼 수 있다. 상제는 「속담에 “이제보니 수원 나그네라 하나니 누구인 줄 모르고 대하다가 다시 보고 낮이 익고 아는 사람이드라는 뜻이니 나를 잘 익

허두라”고 말씀하셨도다」(행록 5장 30절) 라고 하여 암시적으로 화천을 예언하고 출세를 믿고 마음을 바로해 신앙적 자세를 잘 갖추 것을 언급하였다.

김 자현은 六月 어느날 상제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고 다짐하시기에 “지성으로 믿사오며 고부화액 때에도 상제를 따랐나이다”고 믿음을 표명하였도다. 그리고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장차 어디로 가리니 내가 없다고 핑계하여 잘 믿지 않는 자는 내가 다 잊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자현은 “제가 모시고 따라가겠나이다”고 여쭙니 상제께서 다시 “어느 누구도 능히 따르지 못할지니라. 내가 가서 일을 행하고 돌아오리니 그 때까지 믿고 기다리라. 만일 나의 그늘을 떠나면 죽을지니라”고 이르셨도다. (행록 5장 19절)

상제께서 모든 종도를 꿰어앉히고 “나를 믿느냐”고 다짐하시는지라. 종도들이 믿는다고 아뢰니 상제께서 다시 “내가 죽어도 나를 따르겠느냐”고 물으시는지라. 종도들이 그래도 따르겠나이다고 맹세하니 또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궁벽한 곳에 숨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나를 찾겠느냐”고 다구치시니 역시 종도들이 찾겠다고 말하는지라. 상제께서 “그리 못하나니라. 내가 너희를 찾을 것이요. 너희들은 나를 찾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행록 5장 22절)

위의 인용문은 계속되는 상제의 믿음에 대한 질문과 함께 「내가 죽어도 나를 따르겠느냐」 하여 화천에 대한 암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주목되는 것은 「내가 가서 일을 행하고 돌아오리니 그 때까지 믿고 기다리라」고 한 부분에서 어느 시점에서의 출세를 밝히고 믿음을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종도들의 믿음을 강조하며 「나의 그늘을 떠나면 죽을지니라」고 하여 믿음을 저버릴 경우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강한 어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 믿음에 대한 최종적 판단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제는 동학의 가사를 인용해 종도들을 가르쳤는데 그 내용 중 일부는 상제에 대한 출세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 수운 가사는 최수운 자신이 동학의 내용을 나타낸 것이나 아래의 예문들은 상제와 관련된 미래의 상황을 담고 있는데, 이점은 상제가 최 수운에게 계시(啓示)를 내리고 그로 인해 수운이 동학을 창도했다는 사실과 관련해 유추해 볼 수 있다.

水雲가사에 “발동 말고 수도하소. 때 있으면 다시 오리라.” 하였으니 잘 알아 두라 하셨도다(행록 5장 17절).

水雲 가사에 “亂法亂道하는 사람 날 볼 낫이 무엇인가”라 하였으니 삼가 죄 짓지 말지니라.(교법 1장 33절)

너희들은 이제는 이렇듯 나에게 추종하나 후일에는 눈을 떠서 바로 보지 못하리니 마음을 바로하고 덕을 닦기를 힘쓰라. 동학가사에 “많은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람 저러하고 어떤 사람 그러한가”와 같이 탄식줄이 저절로 나오리라.(교법 2장 9절)

상제의 출세를 믿고 그때까지 동요(動搖)없이 잘 수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위의 수운가사 인용구절에서 「발동(發動)하지 말라, 난법난도(亂法亂道)하여 죄 짓지 말라, 마음을 바로 해서 덕을 닦기에 힘쓰라」는 경계의 말들은 상제의 화천과 함께 있을 수 있는 혼란을 예시하고 법도를 잘 지켜 수행해 나가야 상제의 출세와 함께 있게 될 이상세계인 후천선경(後天仙境)의 새 운수(運數)를 누릴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시 한번 동학 관련 가사를 통해서 상제의 화천후 상제를 믿는 마음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어느날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너희들은 손에 살릴 생자를 쥐고 다니니 득의지추(得意之秋)가 아니냐 마음을 게을리 말지어다. 삼천(三遷)이라야 일이 이루어지느니라.”고 이르셨도다.(예시 87절)

이제 너희들이 지금은 고생이 있을지라도 내가 단식하여 식욕을 붙여주고 여름에는 겹옷을 겨울에는 홑옷을 입어 뒷날 빈궁에 빠진 중생으로 하여금 옷을 얻게 함이니 고생을 참을지어다. 장차 천하 만국을 주유하며 중생을 가르칠 때 그 영화는 비길데가 없으리라.(예시 82절)

상제는 믿음에 의해 있게 되는 개개인의 운수를 「나의 일은 남이 죽을 때 잘 살자는 일이요. 남이 잘 살 때에 영화와 복록을 누리자는 일이니라」(교법 1장 6절) 고 하여 차별화하고, 삼천(三遷)의 때까지 사람을 구제하고 어려움을 잘 극복해 상제의 가르침에 따라야 후일 영화와 복록을 받게 됨을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믿음의 견지(堅持)하에 있게 되는 결과인 것이다.

IV. 結 論

이 글은 상제가 인용한 설화의 내용 속에 비유되어 있는 믿음의 의미를 상제의 강제로부터 출세시(出世時)까지의 과정과 연관지어 고찰한 것이다. 비유로 암시된 문학 작품의 인용을 통한 종도들에 대한 감화는 일면 더 큰 심리적 반향을 일으키게 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이점이 상제의 이야기 인용에 나타나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여동빈의 빛 이야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믿음의 본질은 믿음이란 선행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동빈 설화에서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부분은 물질의 문제도 내재되어 있다. 빛 하나에 천냥이라는 것이 또한 허황되며 여기에는 천냥이라는 물질에 대한 인간 마음의 시험이 들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십 년 머슴 이야기에서 십 년간의 기간은 스승이 선술을 배우는데 있어 마음을 닦는 기간으로 제시한 수행의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 놓을 수 있는 스승에 대한 믿음이 결국 선술에 통하게 된다는 것이 이야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십 년간의 머슴살이는 인간의 정성을 알아보는 시험의 기간이라 할 수 있다. 상제의 선술에 통하기 위해서 종도들이 보여야될 믿음의 깊이가 일상속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현실에서는 접할 수 없는 화천한 상제에 대해 보이는 신념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절대적 신념의 발현이 된다 하겠다. 믿음의 본질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그것은 일심(一心)으로 귀착되며 만사(萬事)를 이루게 하는 마음의 요소라 볼 수 있다. 믿어야 될 요체는 상제의 말로 귀결되어 그 말이 약이 되고 병을 치유하며 죄를 없애주는 신비스러운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최풍헌의 이야기는 류훈장이 최풍헌을 변치 않고 믿어 왜병의 침입으로부터 피난했다는 것으로 믿음의 차원에 있어 신분적 차별을 극복한 믿음으로부터 물질적 차원을 넘어서 보인 믿음과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고 죽은 상대를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을 간직해 살아날 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세상과 운수에 대한 소망으로 상제를 믿고 따르던 종도들이 상제의 화천을 맞이하게 된 것은 최풍헌의 죽음과 비유된다. 죽었

다던 최풍헌이 다시 살아나 살길을 열어준 것은 그의 류훈장에 대한 약속을 지킨 것이며 상제의 미래 어느 시점에서의 출세와 그와 함께 이루어질 상제의 천지공사에 의한 이상세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대중들에게 새로운 유토피아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인내의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상제가 보여준 권능과 예지가 종도들로 하여금 외경(畏敬)을 일으키게 하였고 이것은 믿음의 차원으로 발전하여, 종도들의 입장에서는 절대적 존재로서의 스승을 공경하는 종교적 체험을 하게 된다. 상제의 화천(化天)은 믿음의 양상이 새로이 변화되게 하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 출세에 대한 믿음을 통해 상제를 신앙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차원인 것이다.

【참고문헌】

- 大巡眞理會 敎務部(1969), 『大巡眞理會 要覽』, 서울: 大巡眞理會 出版部
- 大巡眞理會 敎務部(1974), 『典經』, 서울: 大巡眞理會 出版部
- 商務印書館 編輯部(1989), 『辭源』, 台北: 遠流出版公司
- 高南植(1999), 「先天 天觀과 상제의 超越性」, 『大巡思想論叢』 제 8집, 大巡思想學術院
- (1999), 「誠과 인간의 價値創造」, 『大巡思想論叢』 제 9집, 大巡思想學術院
- (2000), 「上帝 超越性에 대한 畏敬心の 양상」, 『大巡思想論叢』 제10집, 大巡思想學術院
- 金 鐸(1995), 『甌山 姜一淳의 公事思想 研究』 성남: 정신문화연구원 박사 학위 논문
- 박찬두(1991), 「경전문학의 가능성과 경전의 문학성」 『불교문화이란 무엇인가』, 서울: 동화출판공사
- 尹以欽(1991), 『韓國宗教研究』, 서울: 集文堂
- 任東權(1991), 『韓國民俗學 論考』 서울: 집문당
- 李圭昌(1994), 『全羅民俗論考』 서울: 집문당
- 정진홍(1991), 「종교와 문학」, 『종교와 문학』, 소나무
- 諸橋轍次(1984), 『大漢和辭典』, 東京: 大修館書店
- 최순열(1991), 「한국문학의 정통성과 불교」 『불교문화이란 무엇인가』, 서울: 동화출판공사
- 黃善明(1990), 『宗敎學概論』, 서울: 종로서적 출판사